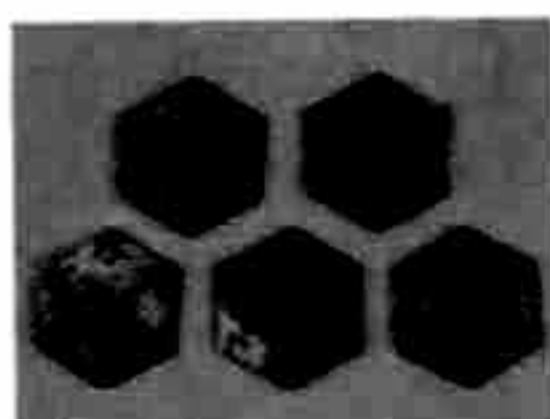


景福宮 勤政門 上樑文

The Kunjung-mun Sangryangmun of
Kyungbok-koong Palace

徐炳沛 文化財專門委員

-
- I. 勤政門의 重建
 - II. 勤政門 上樑文
 - III. 勤政門 上樑文의 發見現況
-



I. 勤政門의 重建

景福宮은 조선 太祖 4년(1395)에 창건되어, 조선 宣祖 25년(1592) 임진왜란으로 소실되었으며, 그후 왕궁으로서 불길하다는 이유로 270여년 간이나 空闕로 있다가 高宗 때 興宣大院君에 의해 중건되었다. 경복궁의 受朝正殿이며, 文武百官의 朝賀를 비롯한 국가 의식을 거행하고 외국사신을 접견하던 法殿인 勤政殿 一郭과 行閣 중앙에 重門으로 높이 솟은 勤政門이 있다.

勤政門은 勤政殿의 正門으로 근정전과 함께 高宗4년(1867)에 중건되었다. 정면3칸의 重層門樓로서 아래 층엔 큼직한 문짝을 달아 여닫게 하였고, 위층은 사방에 널문을 달아 여닫을 수 있는 시설을 하였다. 기둥 밖의 처마 아래에는 위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놓였다. 평소엔 문을 닫아 두고 大小 臣僚들은 文武班에 따라 동쪽의 日華門으로 文官들이 드나들고, 서쪽의 月華門으로는 武官들이 출입하였다. 조선왕궁의 正殿 正門 중 유일한 중층건물로 남아 있다.¹⁾

營建都監에서 高宗3년(1866) 3월10일에 근정문의 상량문 제술관은 金炳冀로 할 것을 제의하여 임명하였고,²⁾ 同年 12월9일에는 上樑文書寫官으로 李敦相을, 懸板書寫官으로는 大護軍 申錫禧로 임명하여 쓰게하였다.³⁾ 그리고 高宗4년(1867)1월19일에 上樑되었다.

경복궁 각 전각의 중건 상량문은『景福宮昌德宮內上樑文』⁴⁾에 일부 실려있어 이를 통해 건축사적 조사나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번 근정문 보수공사 과정에서 중건 당시 상량문이 나와서 새로운 자료의 출현을 계기로 소개하고자 한다.

1) 경복궁에 관한 자료는 다음의 것을 참고 하였다.

『景福宮』한국의 고궁①, 문화재관리국, 1986

『景福宮』-복원정비기본계획보고서-, 문화재관리국, 1994, p110참조

『景福宮』-침전지역발굴조사보고서-, 문화재관리국 국립문화재연구소, 1995

이강근, 『경복궁』, 대원사, 1998

『勤政殿』문화재청, 2000

2) 『高宗實錄』고종3년 3월10조.

3) 『高宗實錄』고종3년 12월9일조.

4) 國立中央圖書館 소장본으로 乾·坤 2冊으로 된 筆寫本이며, 景福宮·昌德宮의 殿, 堂, 門 등의 上樑文이 실려있다.

II. 勤政門 上樑文의 發見現況

上樑文은 대개 번와공사나 건물의 해체보수시에 발견된다. 국가지정 및 시도지정의 건조물문화재 보수시 발견된 상량문은 韓國古建物上樑記文集⁵⁾ 과 上樑文集⁶⁾에 정리해놓은 기록, 그리고 그외에 발굴조사 때 발견된 것들도 단편적이지만, 자료 소개로 하여 실린 내용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⁷⁾

근정문 상량문은 2000년 9월 19일 경복궁 근정문 보수를 위해 해체공사 중 근정문 2층 중도리 하부에 위치한 長舌 중앙부의 상량공에 두루마리 형태로 보관된 것을 수습한 것이다.

상량문은 세로(幅) 78cm, 가로(길이) 1200cm의 크기에 구름무늬가 있는 붉은색 명주에 墨書로 쓰여져 있다. 발견 당시 명주천의 색상은 많이 탈색된 상태이며, 천의 시작점에는 “莊源茂號木機”⁸⁾란 기록이 직조되어 있다.

그리고 상량문 내부 두루마리 끝지점에서 “水”字 陰刻 정6각형 銀제품 5점이 紙類에 싸여진 상태로 발견되었다. 紙類 후면에는 “森”字가 墨書되어 있다. 이 6각형 은제품의 규격은 1변이 21mm이며 “水”字는 6각형 은제품 한쪽면의 각 모서리면에 총 6字가 음각되어 있다. 별도로 은제품에 “水”字를 새겨서 상량문과 함께 봉안한 것을 보면 화재를 막을 수 있다는 주술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도 하다. 보존상태는 양호하며, 상량문 및 상량문 내에서 발견된 “水”字 陰刻 정6각형 銀제품 5점과 이를 싸 紙類는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 연구실에서 보존처리를 한후 특수비닐필름을 이용한 밀폐 포장처리하였다.

근정문의 상량한 年代는 同治6年 즉 高宗4년(1867) 1월 19일이며, 상량문의 作成 및 筆寫한 年代도 이와 同時로 볼 수 있다. 이 상량문은 王命에 의하여 당시 左贊成 原任奎章閣提學 金炳冀가 글을 짓고, 龍驤衛副護軍 李敦相이 썼다.

총 92行에 每行 7~11여자씩 隸書體로 쓰여 있다. 내용은 근정문의 중건 사실을 적고, 祝福을 목적으로 지은 글이다.

5) 申榮勳, 『韓國古建物上樑記文集』, 고고미술자료집 5, 고고미술동인회, 1964.

6) 문화재관리국, 『上樑文集』, 1991.

7) 한성희, 이규식, 정용재, 『목조건조물 상량문의 보존처리』, 『文化財』제31호, 문화재관리국, 1998.

8) 중국에서 수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III. 勤政門上樑文

1. 勤政門上樑文全文

伏以 玉辰⁹⁾ 治 總萬幾而戒逸 金鋪立極 容參局而攷工 納善閉邪 顧名思義 稽王者五政五法 有天家三門三朝 其圓二百十六之乾 其方 百四十四之坤 宮室 盖取易象 爲牖七十有二之風 爲戶三十有六之雨 開闔 自符天時 青陽總章 居左扉於閏月 南端北掖 肅環衛於太微 是故 廣運道樞 妙合神鍵 帝典 讚以穆穆 賓禮昉於斯 大雅 美其將將 王業 造于此 桓圭 袞冕之高拱 朔日以聽 肆夏采齋¹⁰⁾ 之行趨 會同有繹 瞻畫虎而明勇猛 夾肺石而達窮民 媿茲 景福丕基 巍乎 勤政法殿 倣成周之曰明堂曰大寢 斯義也 清廟爲陽 社稷爲陰 譬永樂之稱皇 極稱奉天 其位則華盖在前 謹身在後 右平左城 鎮山河於青邱 舜館堯臺 擊日月於黃道 儼黼 座之臨下 赫彤闈之當中 姬公 格于皇閔 肅德揚茂 魯國 樹之庫雉 候制率彝 既未央之重威無加後世 迺汴京之端直 定如我心 至若二字嘉名 實爲百王治本 體無逸稼穡之訓 克勤于邦 揭中庸蒲盧之功 爲政以德 靈臺之端日 至戾 玉食不違 東都之庭燎有光 鸞聲已噦 道義存乎成性 君子以之自強 嗟棟宇隆撓之靡常 卽堂 構繼述之有待 璧英密石 緬靈光之獨存 萬戶千門 思建章之重起 恭惟 主上殿下 勵精圖理 居正調元 茅茨土階 挽大化而節儉 梓材 丹雘用明德而賁文 惟其制作禮樂之章 粲然具備 所以修舉廢墜之典 展也大成 於是 測圭而遵舊模 正槩而合新矩 凡礎列若星斗 記百年頽觀之儀 槐楸拂于雲霄 想列聖培養之澤 霧縈藻井 奮龍首而鬚鬚 芝栴梅梁 聳鵬翅而縵縵 森鈎陳於四表 呀闔闔於九天 神嶽鬱蔥 排綉闈而送翠 淑景絢燦 射金榜而流紅 翕闢二儀 子午指向 出入萬物 甲甲¹¹⁾ 象形 洪功 自運於辰居 聖念 克懋於寅惕 命哲命吉 知初服所禱 倣戒無虞 惟精惟一 執厥中常若神明對越 唐宗之衣汗忘暑 理要共談 高皇之筆記待晨 民事當速 肆內朝外朝之同飭 所殿號門號之相符 載侑奚斯之勞 恭陳張老之頌

兒郎偉拋樑東 博桑瑞色籠 氤氳仁屬木 發育見神功
兒郎偉拋樑南 薰風殿角含 嚮明開兩扇 至化八荒覃
兒郎偉拋樑西 祥光爛聚奎 仁王似岐岵 鸞鷲老梧樓
兒郎偉拋樑北 蕤紉凝宸極 乙夜猶求衣 惟王疾敬德
兒郎偉拋樑上 一理天功亮 剛健六虛周 高明百祿賜

9) "視"의 古字임.

10) 齋는 齋로 써야 함.

11) "卯"字의 古字임.

兒郎偉拋樑下 治道詢朝野 青瑣進訐謨 羣龍式路馬
 伏願上樑之後 棖闕彌鞏 罍罍增輝 煙月升平 達九衢而熙皞 風雲際會 欽四隣而都俞 苞竹
 茂松 永奠中黃之宅 銅爵鍊鳳 長護太紫之宮

輔國崇祿大夫 行議政府左贊成 原任奎章閣提學 臣 金炳冀奉 教謹撰
 折衝將軍 行龍驤衛副護軍 臣 李敦相奉 教謹書
 同治六年正月十九日子時

2. 譯文

엎드려 생각하건대 玉辰¹²⁾의 다스림을 보니 萬幾¹³⁾를 다하여 安逸을警戒하고 金鋪에
 登極하여 參肩¹⁴⁾을 꾸미고 공사를 마치도다. 착한 말을 받아들이고 아첨하는 말은 물리치
 며 이름을 보고 그 뜻을 생각한다.

왕의 五政¹⁵⁾ 五法¹⁶⁾을 살펴보건대 天家에는 三門¹⁷⁾ 三朝¹⁸⁾가 있으니 그 圓은 216¹⁹⁾의
 乾이요, 그 方은 144²⁰⁾의 坤이다. 宮室은 대개 주역의 象을 취했으니 窓 만드는데는 72²¹⁾
 의 風으로 하고, 戶를 만드는데는 36²²⁾의 雨로 하였다. 문을 열고 닫음이 자연히 天時에

12) 왕이 출입하는 門

13) 王의 治務를 말한다. 幾는 微의 뜻이니 날마다 발생하는 일의 복잡 미묘함을 뜻한다. “無教逸欲有邦 兢兢業業 一日二日 萬幾 無
 曠庶官 天工人其代之” 『書經』 皋禹謨 篇에 보임.

14) 王을 謁見하는 門

15) 五事七政, 또는 管仲의 政治에서 春夏秋冬 四時마다 時宜를 알게 하는 다섯 가지 種目.

16) 仁義禮智信 또는 備數 和聲 審度 嘉量 權衡.

17) 正門인 庫門과 外朝와 治朝 사이의 雉門, 治朝와 燕朝 사이의 路門을 말함.

18) 帝王의 宮闕에는 다 三朝가 있다. 外朝·治朝·燕朝를 뜻함.

19) 老陽의 策數는 36인바 乾卦는 모두가 陽이므로 36×6爻는 216이 된다.

20) 老陰의 策數는 24인바 坤卦는 모두가 陰이므로 24×6爻는 144가 된다. 그러므로 乾·곤 모두 360이니 1년의 일수에 해당됨.
 “乾之策 二百一十有六(216) 坤之策 百四十有四 凡三百有六十 當期之日” 『周易』 繫辭上傳에 보임.

21) 天地 陰陽 五行의 成數이다. 즉 一年의 氣候를 七十二候로 나눈다. 예를 들면 5日을 1候, 3候를 1氣, 6候를 1個月로 하여 七十二
 候로 만든다.

22) 一年 降雨의 回數가 三十六回이어야 正常이다. 天文에 응하는 것인바, 열흘에 한번씩 내려야 하며 이것이 雨順風調로서 豐年을
 기약한다.

23) 王의 봄 居所 즉 東向堂.

24) 王의 가을 居所 즉 西向堂, 萬物이 가을에 總成하여 章明한다는 뜻임.

25) 闕의 守衛.

26) 北斗星의 남쪽과 軫翼 두별의 북쪽에 형성된 10개의 별, 즉 五帝를 중심으로 藩邦諸侯의 형상을 나타내고 있다.

27) 임금의 덕이 넓어서서 성스럽고, 신묘스럽고, 위엄이 있고, 영화가 드러난다는 뜻. “帝德廣運 乃聖乃神 乃武乃文” 『書經』 大禹謨
 篇에 보임.

28) 道의 중요한 기관.

29) 宮門의 열쇠 즉 王宮을 상징한다.

부합된다. 靑陽²³⁾과 總章²⁴⁾에는 왼쪽 사비문에 윤달 표시를 해놓고 남쪽의 정문과 북쪽의 뒤뜰에는 環衛²⁵⁾를 太微²⁶⁾에 엄숙하게 하였다. 이런 까닭에 廣運²⁷⁾과 道樞²⁸⁾가 神鍵²⁹⁾에 妙合된다.

帝典에서는 穆穆³⁰⁾한 賓禮가 이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大雅³¹⁾는 將將³²⁾한 왕업이 이에서 시작된다고 찬미하였다. 桓圭³³⁾와 袞冕³⁴⁾의 높은 拱手³⁵⁾로 초하루 아침의 政事를 듣고 肆夏³⁶⁾와 采齊³⁷⁾의 行趨(行步)로 會同이 끊이지 아니한다. 범 그림을 보고 용맹을 밝히며, 肺石(裁判)³⁸⁾을 진행하여 곤궁한 백성을 통달하게 한다. 아름답구나! 景福宮의 큰집이여! 높구나 勤政의 法殿이여! 成周³⁹⁾의 明堂, 大寢을 모방한 것이다. 이 뜻이야말로 淸廟⁴⁰⁾가 陽이 되고 社稷이 陰이 됨이로다. 永樂⁴¹⁾의 皇極⁴²⁾이라 칭하고 奉天⁴³⁾이라 칭함에 비유되니 華蓋⁴⁴⁾가 앞에 있고 謹身⁴⁵⁾이 뒤에 있다.

右平 左城⁴⁶⁾은 山河가 靑邱⁴⁷⁾에 진압되고 舜임금의 館⁴⁸⁾과 堯임금의 臺⁴⁹⁾는 日月이 黃

30) 舜임금이 帝位에 올라 사방의 문을 열어 賓禮로 諸侯를 대접하니 사방의 제후가 모두 지극히 화목하였다. “賓于四門 四門穆穆” 『書經』舜典 篇에 보임.

31) 詩經 六義의 하나로 君臣간 宴會의 음악.

32) 嚴正함이다. 太王이 岐邑으로 遷都하여 宮闕을 創造함에 應門(왕의 正門)이 엄정하다는 뜻. “迺立應門 應門將將” 『詩經』大雅 文王 篇에 보임.

33) 周代 公爵들의 笏로 길이가 9寸이다. 여기서 王과 公卿을 뜻함.

34) 袞龍袍와 冕旒冠, 王의 禮服.

35) 恭敬하는 뜻을 표하기 위하여 두 손을 마주 잡음.

36) 樂曲名, 行步에 이 樂曲과 步調를 맞추다.

37) 樂曲名이며, 行步에 이 樂曲과 步調를 맞춤.

38) 裁判의 公正을 말함. 肺石風淸, 즉 아래에 冤枉(누명)의 백성이 없음.

39) 周나라.

40) 祠堂 이름.

41) 明나라 成祖의 年號.

42) 帝王 治世의 要道. “五皇極 皇建其有極 斂是五福 用敷錫厥庶民 惟時厥庶民 于汝極 錫保極” 『書經』洪範 篇에 보임.

43) 宮殿 이름.

44) 帝王의 車蓋, 임금이 타는 가마를 뜻함.

45) 庶民을 말한다. “用天之道 因地之利 謹身節約 以孝父母” 『孝經』에 보임.

46) 官職

47) 우리 나라의 別稱.

48) 요임금이 순임금을 사위로 삼아 집을 마련해 주었다. 鎋館이라 한다.

49) 요임금의 政堂

50) 붉은 칠한 宮門, 宮中을 뜻함.

51) 魯나라 제후.

52) 왕궁의 문.

53) 五門에는 臯門, 庫門, 雉門, 應門, 路門이 있다. 여기서 庫門, 雉門을 말함. 『禮記』明堂 篇에 보임.

54) 漢나라의 유명한 宮殿, 長安 서북쪽에 있음.

55) 五代의 後晉, 後漢, 後周에서부터 宋代까지의 首都, 지금의 開封.

56) 단정함.

道에 떠받친다. 엄연히 黼座가 아래에 임하고 彤闈⁵⁰⁾가 가운데에 마련되어 있구나. 姬公⁵¹⁾이 皇閔⁵²⁾에 이르느니 엄숙한 덕이 드날려 성대하고, 노나라가 庫雉⁵³⁾를 세우니 諸侯의 制度를 따른 것이다. 이미 未央⁵⁴⁾의 엄중한 권위가 후세에 더할 수 없으며 汴京⁵⁵⁾의 端直⁵⁶⁾함이 내 마음과 같구나! 두 글자의 아름다운 이름을 붙임에 이르러서는 百王의 다스리는 근본을 삼음이니, 無逸 篇에 나오는 稼穡⁵⁷⁾의 교훈을 본받아 나라에 克勤⁵⁸⁾하고 中庸에 나오는 蒲盧의 功⁵⁹⁾을 생각하며 爲政을 德으로써 하리라.

靈臺⁶⁰⁾의 상서로운 날이 기울임에 이르도록 玉食⁶¹⁾을 먹을 겨를도 갖지 못하고 東都⁶²⁾의 庭燎⁶³⁾에 빛이 있으니 방울소리가 嘒嘒⁶⁴⁾하는구나. 道義는 本性을 保存하고 군자는 自彊⁶⁵⁾하도다.

아! 棟宇의 높고 높음이어! 보통이 아님은 곧 堂構 繼述⁶⁶⁾을 기다림이 있는 것이라 하겠다. 璧英(아름다운 옥), 密石(고운 돌), 靈光⁶⁷⁾의 독특함을 생각하며 萬戶 千門은 建章⁶⁸⁾의 재건을 연상케 한다.

공손히 생각하옵건대 주상전하께서는 정력을 가다듬어 다스림을 도모하시며 正道에居하셔서 元⁶⁹⁾의 조화를 이루소서. 茅茨土階⁷⁰⁾는 大化(덕화)로 이끌되 절약 검소하시고 梓材⁷¹⁾의 丹雘(丹青)은 明德으로써 文飾⁷²⁾하소서.

생각건대 禮樂 制作의 章이 찬연히 구비되었으며 그러므로 廢墜된 법도가 修學되도

57) 稼穡(농사)의 어려움을 알아야 한다는 교훈, 즉 周公이 조카 成王에게 준 敎訓. “君子所其無逸 先知稼穡之艱難” 『書經』 無逸 篇에 보임.

58) 부지런함.

59) 政治 效果의 敏速을 말함 “人道敏政 地道敏樹 夫政也者 蒲盧之功” 『中庸』 第20章과 『孔子家語』에 보임.

60) 文王 靈臺를 말한다. 이 臺를 지음에 庶民이 와서 아버지의 일을 돕듯이 하였다. “經始靈臺 經之營之 庶民攻之 不日成之 經始勿亟 庶民子來” 『詩經』 大雅 靈臺 篇과 『孟子』에 보임.

61) 文王이 先代의 業을 이어받아 薦仁, 敬老, 慈少하며 賢者에게 禮로 낮추어 해가 중천에 오르도록 밥을 먹을 겨를도 없이 선비를 기다렸다 『史記』에 보임.

62) 洛陽 즉 周나라 行政都市를 말한다.

63) 諸侯들의 모임을 위하여 뜰에 펴놓은 불임. 밤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불빛이 있고, 朝會하는 자들의 오는 방울소리가 들리니 잠도 편안히 자지 못하고 정사에 몰두함을 뜻함 “夜如何其 夜未央 庭燎之光 君子至止 鸞聲將將” 『詩經』 小雅 庭燎 篇에 보임.

64) 방울소리가 크게 울림.

65) 천도의 끊임없는 運行을 말함. “天行 健 君子以 自彊不息” 『周易』 乾卦의 象에 보임.

66) 아들의 父業 承繼를 말함이니 즉 집 지음을 政治에 비유한 것이다. “若考作室 既底法 厥子 乃弗肯堂 矧肯堂” 『書經』 大誥 篇에 보임.

67) 神異한 光彩, 王의 恩澤을 뜻함. “恩澤滿天下 靈光施四海” 『三國志』 蜀志先主記에 보임.

68) 漢代의 宮殿名. 화재가 있는 후 再建하여 千門萬戶를 이루었다.

69) 元亨利貞은 天道의 正常임. 따라서 元은 善의 長이다. 즉 王道를 뜻함. “元者 善之長也” 『周易』 乾 篇에 보임.

70) 옛 明堂의 檢소함을 말한다.

71) 집 지음을 立國에 비유한 것임. “若作室家 既勤垣墉 惟其塗墍茨 若作梓材 既勤樸斲 惟其塗丹雘” 『書經』 梓材 篇에 보임.

72) 화려하게 꾸미는 것.

73) 알현함.

다. 진실로 위대한 이루어짐이로다. 이에서 圭臬(표준)을 헤아려 옛 규모를 따르며 과녁을 바로 잡아 새 規矩에 맞게 한다.

문지방과 주춧돌은 복두성을 늘어놓은 듯하니 백년 頽觀⁷³⁾의 모습을 알 수 있고 느티나무와 오동나무가 구름 하늘에 떨치니 列聖朝 배양의 恩澤을 상기하는구나. 안개 그려 장식한 대들보 받침과 水草⁷⁴⁾ 그려 꾸민 천정은 용의 머리 높이 솟았고, 芝草⁷⁵⁾ 그려놓은 들보받침과 梅花 그려 올린 들보는 鵬새의 날개 솟구치면서 느긋하구나! 鈎陳⁷⁶⁾이 사방에 삼삼하며 대궐 문이 구만리 장천에 높이 솟았도다.

북악산 울창하니 수놓은 문을 헤치며 푸르름 보내고 맑은 경치 곱고 고으니 金榜⁷⁷⁾을 쏘면서 붉은 빛 흘린다. 열고 닫는 二儀(陰陽)는 子午(남북)의 방향을 가리키며 드나드는 만물은 “卯”⁷⁸⁾字의 형상이다.

큰 功은 스스로 동방에 운행되고 聖念은 寅揚(공경하고 조심함)에 힘쓴다. 훌륭한 길한 운명은 初服⁷⁹⁾에서부터 수놓은 듯 경계함에 근심이 없고 오직 精하며 오직 專一함⁸⁰⁾은 그 中을 잡아 항상 神明 대하듯 하네. 唐나라 太宗이 땀나는 옷을 입고도 더위를 잊음은 다스림에 중요로움이며, 漢나라 고황제가 기록하며 새벽을 기다림은 民事를 속히 함이로다.

그러므로 內朝와 外朝를 함께 장식하고 殿의 이름과 門의 이름을 서로 맞게 한 바이다. 이에 奚斯⁸¹⁾의 공로에 답하며 공손히 張老⁸²⁾의 기림을 펴노라.

어기여차⁸³⁾! 들보를 東으로 들어올리니,

74) 불을 피하는 뜻으로 그린 그림.

75) 신령스러운 풀,祥瑞로운 상징으로 여김.

76) 별 이름, 일명 後宮의 稱號.

77) 科擧에 及第한 사람의 이름을 써서 거는 榜.

78) 卯의 古字임.

79) 왕의 登極 初期, 教化가 처음 행해지다.“王乃初服”『書經』召誥 篇에 보임.

80) 堯舜이 禪位하면서 傳受한 心法, 人心은 위태롭고 道心은 微妙하니 오직 精密하고 오직 專一하여야 그 中庸을 잡을 수 있다는 말. 堯는舜에게 “允執厥中” 4字를 말했으나,舜은禹에게 “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12字를 더 붙여서 16字를 주어 禪位하였다. “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書經』大禹謨 篇에 보임.

81)魯나라 公子, 이름은 魚,字는 奚斯, 新廟를 지은 사람, 工事의 진도와 規程을 맡아 萬民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잘하였다. “桷有 魚 路寢孔碩 新廟奕奕, 奚斯所作 孔曼且碩 萬民是若”『詩經』閟宮 篇에 보임.

82) 春秋 晉나라 大夫, 獻文子가 집을 낙성하였는데 名頌을 撰하였다. ‘아름답구나, 높고도 크도다. 빛나고 찬란함이 많구나. 여기서 노래하고 여기서 곡하며 여기에서 國族을 모으겠구나’ 하여 건물이 지나치게 화려한 것을 풍자하였음 “美哉輪焉 美哉奐焉 歌於斯 哭於斯 聚國族於斯”『禮記』檀弓下 篇에 보임.

83) 상량할 때에 외치는 소리

동쪽에 상서로운 빛 영롱하구나.
봄기운은 仁이오, 木이니.
神功의 發育 보리라!

어기여차! 들보를 南으로 들어올리니,
南薰殿⁸⁴⁾ 태평가 훈훈하도다.
밝음 향하여 두 부채 펼치듯,
임금님 德化 팔방에 뻗치네.

어기여차! 들보를 西로 들어올리니,
상서로운 빛 奎星⁸⁵⁾도 찬란히.....
인왕산이 마치 岐山⁸⁶⁾인 듯,
봉황이 늙은 오동에 깃들으리.

어기여차! 들보를 北으로 들어올리니,
누런 솜 왕의 귀를 막는다.⁸⁷⁾
깊은 밤 오히려 옷을 찾으니⁸⁸⁾
임금님이여! 敬德⁸⁹⁾
을 빨리 하소서.

어기여차! 들보를 위로 들어올리니,
하나의 진리, 하늘의 조화 믿어워,
곧건함이 六虛⁹⁰⁾에 두루 하니,
높고 밝은 백가지 祿 내려주시네.

84)舜임금이 南薰殿에 五絃琴을 타니 우리 백성의 섭섭한 마음 풀리다. 太平을 뜻함.

85)宋代에 金木水火土五星 奎星 분야에 승합하였다. 이는 새로운 시대가 창조되며 文運이 열리는 것이다. 『天文志』에 보임.

86)周나라 文王의 도읍.

87)왕이 黃綿으로 귀를 막아 讒言을 듣지 아니한다.

88)孝文帝가 天下大難으로 새벽에 일어나 떨다가 옷을 얻어 입고 추위를 면하였다.

89)周나라가 洛陽에 新邑을 짓고 召公이 成王에게 執政初期에 敬德을 敏速히 하여 하늘의 永命을 받으라 告하였음. “宅新邑 肆惟王 其疾敬德 王其德之用 祈天永命” 『書經』 召誥 篇에 보임.

90)天地四方

어기여차! 들보를 아래로 들어내리니,
다스리는 道 朝野에 묻노라,

나라 문에 經綸⁹¹⁾ 바치니,
무리용들! 路馬⁹²⁾에 禮 올린다.

엿드려 원하나니, 上樑 뒤에는 문지방 더욱 공고하고 罽毳⁹³⁾ 더욱 빛나며, 太平煙月 거
리마다 누리고, 임금과 신하 서로 뜻 맞아 四隣⁹⁴⁾ 공경하며 찬미하소서. 우거진 대나무와
무성한 소나무, 길이 길이 군왕 집터 잡고, 銅爵과 鐵鳳⁹⁵⁾의 기상으로, 길이 길이 太紫⁹⁶⁾
궁궐 보호하소서.

輔國崇祿大夫 行議政府左贊成 原任奎章閣提學 臣 金炳冀는 교명을 받들어 삼가지음.
折衝將軍 行龍驤衛副護軍 臣 李敦相은 교명을 받들어 삼가 씀.
동치 6년(고종 4, 1867) 정월 19일 자시(子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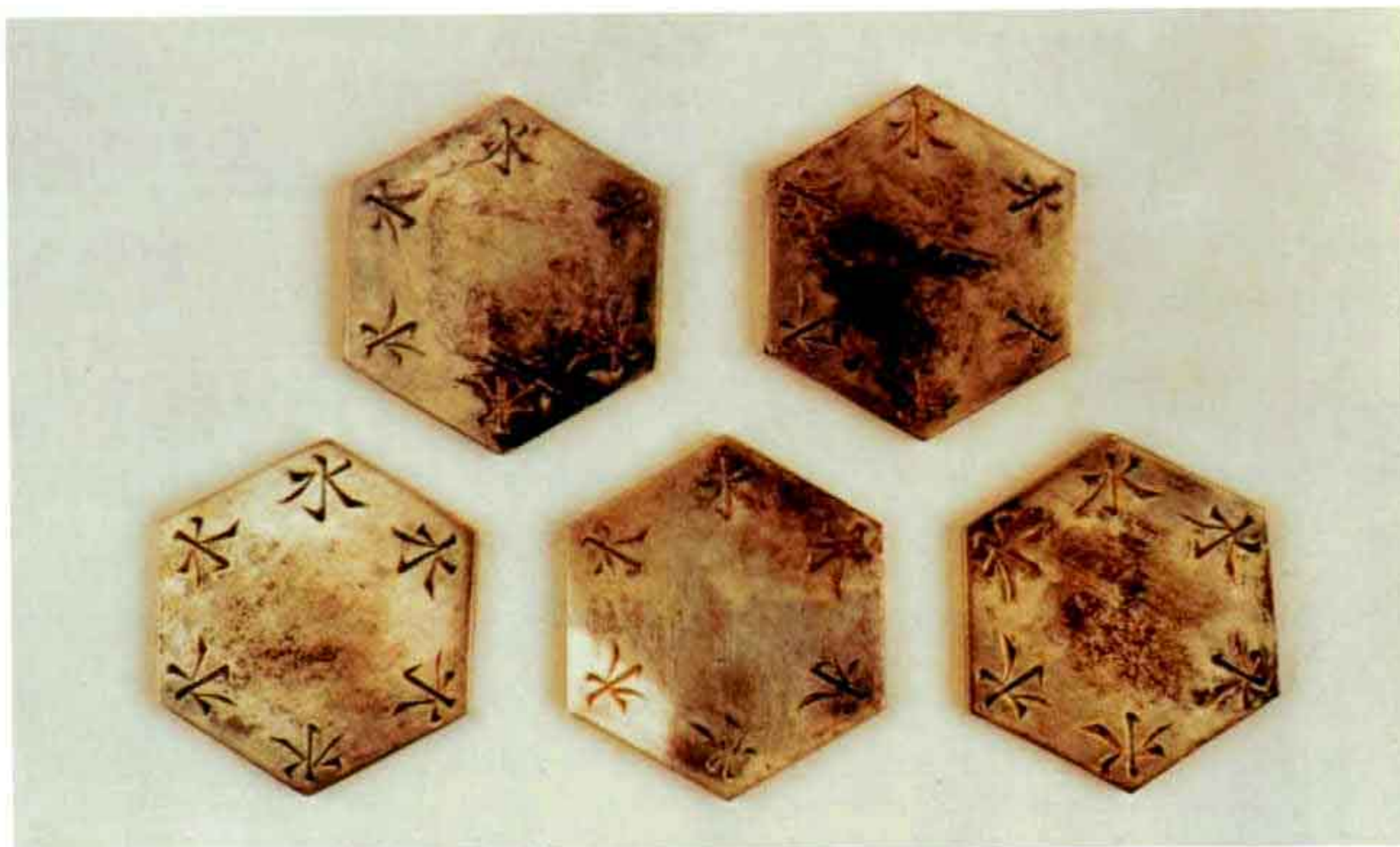
92) 왕의 수레

93) 새가 앉지 못하도록 공포를 꾸민 집의 처마 밑에 설치한 철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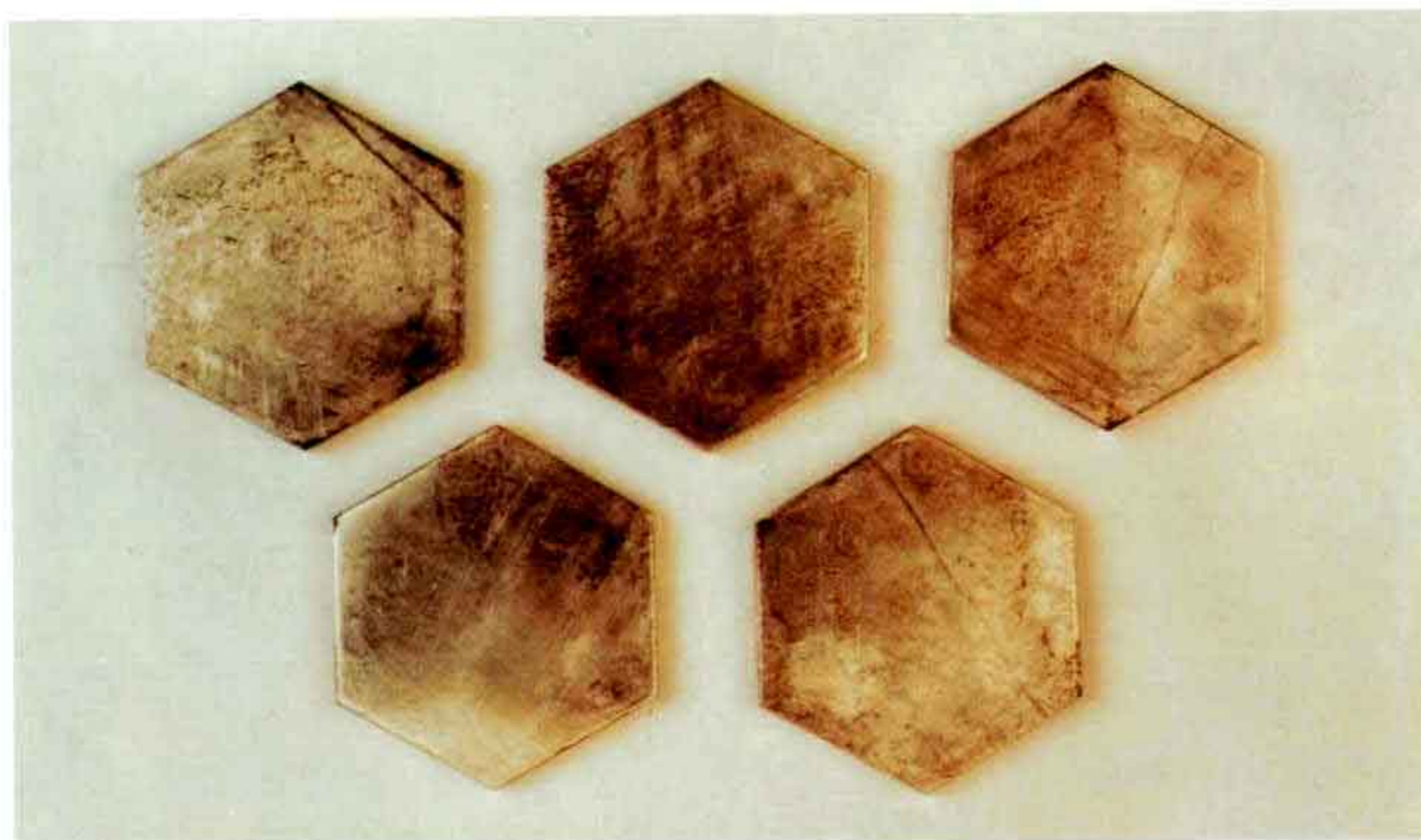
94) 君王은 신하를 이웃과 같이 親近히 생각하며 공경한다. "臣哉 隣哉 予違汝弼 汝無面從 退有後言 欽四隣" 『書經』 益稷 篇에 보임.

95) 구리로 만든 봉황새와 철로 만든 봉황으로, 튼튼함을 상징한 것에 비유한 것임.

96) 紫微星을 뜻한다. 北斗星의 북쪽에 있는 성좌. 천자가 거처하는 곳 즉 대궐을 말함.



"水"字 음각 육각형 은제품 전면의 보존처리후 상태



"水"字 음각 육각형 은제품 후면의 보존처리후 상태

The Kunjung-mun Sangryangmun of Kyungbok-koong Palace

Seo, byung-pae

Kunjung-mun Gate, the only existing multi-level palace gate from the Chosun Dynasty, is the main gate of Kungjung-jun, the central building of Kyungbok-koong Palace.

Sangryangmun (a written record of the construction of the ridge beam) of Kunjung-mun Gate was discovered in a hole under its main beam during the renovation project on September 19th, 2000. At the time of discovery, Sangryangmun was found in its original state as a rolled up scroll.

On a cloud-patterned, red silk cloth, 78 cm in width and 1200 cm in length, each of all 92 lines of the Kunjung-mun Sangryangmun is comprised of either 7 or 11 brush-written, ornamental “Seal” characters.

With an exception of its discoloration, the material is considered well preserved. After its discovery, the National Institute of Cultural Properties stored the document in an airtight container for a permanent preservation.

In accordance to the Royal Command at the time, the Kunjung-mun Sangryangmun was composed by Kim Byungi, then written by Lee Donsang on January 19th 1867. This document records the meaning and the process of the repair effort of Kunjung-mun Gate includes the wish for peace and longevity of the Chosun Kingdom and its people.